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앞두고 있던 말로리(George Mallory)는 한 강연에서 위험해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산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Because it is there)'이라고 대답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른다. 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선택하는 것일까. 추동감소이론에 따르면 긴장과 각성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하지 않는가. 사교나 질병으로 대역섯 시간 수술을 받아본 사람들은 수술 전후의 고통을 알고 있다. 수술 후의 고통은 비록

마취(麻醉) 원하는 사회

무통 주사를 맞지 않는다 해도 심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상태가 호전되고 치료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만 수술을 통해 치료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상태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심리적 기증으로만 본다면 이전보다 고통이 덜하다고 한다. 이런 치료의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을 지우기 위해 마취를 하게 된다. 마취는 반드시 각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고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이 경우 본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잠에 빠질 수도 있지만,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육체적 피로는 물론이려니와 정신적 고통을 받기도 한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경우도 많다. 고통은 반드시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것만도 아니

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보면서 심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지진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거나 또는 아무런 죄 없이 테러를 당해 어린 생명들까지 잃고 울부짖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가진 고통처럼 슬픔에 빠지기도 한다. 고통의 인지와 공감은 우리의 뇌가 각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겨울이 이미 싸늘하게 스며들고 있고 무엇보다 따뜻한이 그리운 때가 됐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마취를 원하는 것처럼 고통을 외면하면서 지내왔다. 한 개인과 가족은 물론이려니와 계층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통 등을 외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한다. 자신의 통증을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통증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마취 상태와 같다.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1920년대를 풍자한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에서 백 년쯤 지난 오늘, 우리 사회는 흥청거리는 것을 넘어 '마취를 원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도청과 도의회 사이의 길을 하루에 한 번씩 지나면서도 저녁이면 시청 앞 골목을 찾고, 휴일이면 그 길을 지나치며 한라수목원으로 달려간다. 통증과 슬픔을 인지하려는 뇌를 스스로 제어하고 외부의 자극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심리학자 역스와 다슨은 최적인 각성일 때 사람들의 수행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각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너무 긴장이 된다는 의미이고, 각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졸리고 집중이 안 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한다면 마취가 무통이라면 각성은 통증에 가깝다. 오늘은 상고대가 내린 백록담을 바라보면서 가을 풀들이 이운, 겨울 들길을 걸어보고 싶다.

사설

도민 혈세 허투루 안되도록 철저히 심사해야

5조8229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결특위 심사가 3일부터 시작된다. 도와 도의회간 예산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결특위는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한 최악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세출구조조정이 없었고, 재정압박을 이유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까지 모조리 동원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감정 싸움마저 벌이는 양상입니다. 도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권은 헌법상 도정을 견제하고 총살한 살림살이 편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어디에 적정하게 쓰이는 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의회의 예산안에 대

한 비판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강도의 검증을 예고하다가도 은근슬쩍 째짜미식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도의회로서는 밀실 야합이나 날림 심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주경제는 농업, 건설경기, 서비스분야 할 것 없이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주경제가 활기를 띠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성과가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는 과감히 삭감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막대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도의회의 책무입니다.

열린마당

'조상의 얼' 제7회 조설대 경모식 개최



양 임 성  
조설대경모식추진위원회 위원장

1905년 광무9년 일본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하자 문연서숙 이응호, 김좌경, 김병로, 김병귀, 김이중, 고석구, 김석익, 강철호, 김기수, 강석중, 임성숙, 서병수 유립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바위에 조설대(朝雪臺) 새기고 일본에 항거하는 결의를 다졌다. 비밀결사체 '집의계'를 결성하고 제주도 유립들과 지식인들에게 우국론(憂國論)을 펼치며 제주 최초로 일본에 항거하는 집회를 가진 것이다. 면담 최익현 선생의 정신을 담아 집의계 애국선구자 12인은 제주도 의병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吾等은 半萬年 歷史를 負戴한 우리百姓으로서 朝鮮의 確固不動한

獨立과 守舊開化 兩黨紛爭과 奸臣謀利輩 爲政과 倭寇와 倭寇侵入之紛爭을 義學로 抗拒하여 忠君愛國과 禮義道德을 萬天下百姓들에게 感心이 되도록 行動하며 倭人을 一刀一劍에 殺戮할 것을 首領代表 李膺鎭은 契員과 더불어 宣誓한다. 光武 九年 三月 集義契 代表 李膺鎭外 11人 조선의 수치를 설욕하겠다는 뜻을 담은 선서문으로 '조설대'에서 굳은 결의를 시작으로 3.1운동으로 이어졌다. 조설대는 그 옛날 망국단으로 국상이나 나라에 큰일이 났을 때 북쪽을 향해 배를 올리고 곡을 하던 유서 깊은 곳이다. 2003년 12월 향토문화유산 제11호로 등록됐고 2010년 2월 12일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오라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집의계 12인 애국선구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설대 경모식을 개최하고 있다. 12월 7일 오전 11시 오라리동 연미마을 조설대에서 제7회 조설대 경모식이 거행된다. 집의계 애국선구자의 정신을 받들어 나라사랑 향토사랑을 제주도민과 함께하고 싶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의회 '예산안 논쟁' 공방 2차전

예결특위 1차 회의서 설전 ○...지난 2일 '보도-해명자료전'을 통해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논쟁을 받았던 제주도 의회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공방전을 전개. 이날 속개된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놓고 규정 위반과 문제 없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설전. 이 과정에서 예결특위는 도의 반박 보도자료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다루는 모양새로 도민사회에 비쳐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 오은지기자

능 중심에선 학생들의 활동과 개인 특성을 담아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 이어 "정시를 중심으로 하면서 관련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라며 "(교육부가) 진행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피력. 김지은기자

“정시 확대, 의견 수렴해야” ○...교육부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늘리도록 권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 이 교육감은 3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수

능 중심에선 학생들의 활동과 개인 특성을 담아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 이어 "정시를 중심으로 하면서 관련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라며 "(교육부가) 진행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피력. 김지은기자

주택경기 침체기, 행정의 유연함 아쉽다

제주지역 건축경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썰렁합니다. 몇몇 지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올들어 건축허가 건수나 면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미분양 주택도 해소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9월 기준 1161호에 이릅니다. 제주시는 2017년 3월 735호를 기록한 이후 올해 7월까지 29개월간 줄곧 미분양 주택이 500호를 못뚫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753호에 이어 지난 8월에는 479호로 30개월만에 500호대 벽을 깼습니다. 다시 9월에는 426호로 더 줄어들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서귀포시 지역은 주택경기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면서 대조적입니다. 월평균 500호 이하를 유지했던 미분양 주택이 지난 6월 570호를 기록한 이후 9월에

는 735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보다 훨씬 많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냉랭한 주택시장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주택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행정의 유연함도 보이지 않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바로 서귀포시는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의 유연한 대응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무 자르듯이 하는 것이 과연 능사냐는 것입니다. 주택경기가 좋을 때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행정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경기가 심상치 않은데 착공을 미룬다고 철회를 내리는 것은 경직된 행정의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정공 영조(사도요한·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4일  
아들 정기창(배우) 며느리 이경애(배우)  
정기일(배우) 좌명금(배우)  
사위 박준철(배우)  
딸 정순임(배우)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계 계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 3년생  
감 평 ..... 3년생  
천혜향 ..... 4년생  
성전온주 ..... 4년생  
황금향 ..... 4년생  
하래조생 ..... 3년생  
뽕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아름다운 마지막 동행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초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노형에서 10분 거리  
● 독립적인 5개의 고품격 분향실  
●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찬제공)  
●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박서영 (1985. 6. 3생)  
· 최후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8길 21, 213호 (연동)  
위 사람은 2019. 8. 13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은 2019. 11. 22 제주지방법원 2019노단000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0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니 상속재판자와 유증받은 자는 신고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기 위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신고기간 : 2019. 12. 4. ~ 2020. 2. 7.  
2. 신고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136동 2004호 (조원동, 수원원일타운아파트)  
2019년 12월 4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조영분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